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법원 판사가 뽑은 올해의 1위 로스쿨은?

- 특허청·특허법원,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공동 개최 -
- 전국 19개 로스쿨 참여...지재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기 돋보여 -
- 연세대·이화여대 로스쿨팀, 특허 및 상표·디자인 부문 우승 차지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법원(법원장 진성철)과 함께 8. 14.(수) 17시 1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로 명칭 변경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 강채은, 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 김다혜, 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 시상 내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2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2팀), 한국특허법학회장상(1팀), 장려상(5팀), 입선(10팀)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 팀(특허 부문 42팀, 상표·디자인 부문 12팀), 162명이 참가해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9개 학교가 참석해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예선), 본선, 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로스쿨 출신 판사들과 학생들 간의 간단한 Q&A가 진행되어, 특허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로스쿨 졸업 후 진로 등을 얘기하며 지재권 소송의 실무에 대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되었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기술과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법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사안을 충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며, “소송 준비서면을 완전히 숙달하기위해 노력하였고, 제시된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면을 참고했던 점이 주요했다”고 덧붙였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은 “팀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식재산소송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작년 대회의 우수변론과 특허법원에서 발간한 지적재산 소송실무 서적을 참고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노하우를 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고 보호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요소”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붙임: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현장 사진, 수상자 명단, 개요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장은준 (042-481-5771)



▲ 김완기 특허청장이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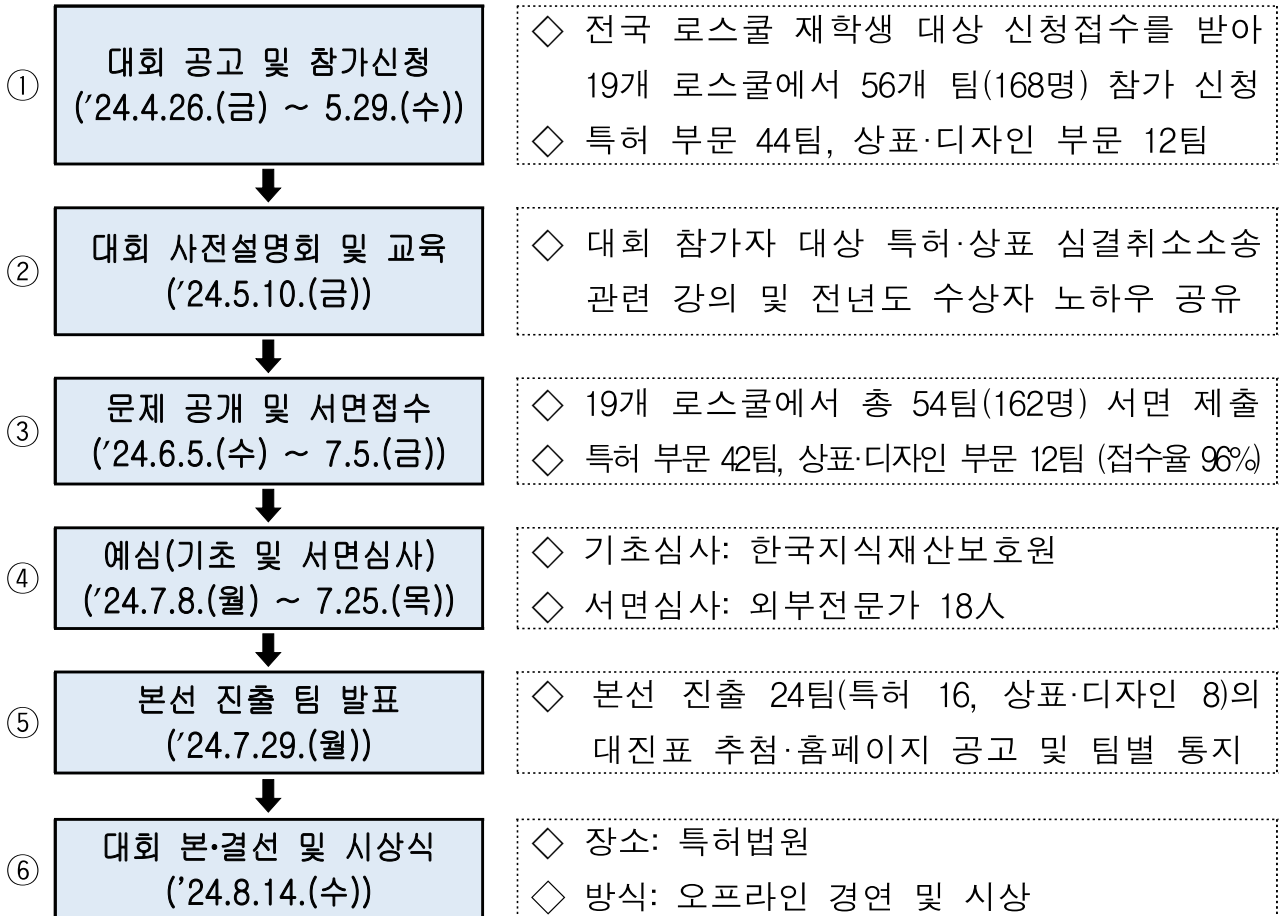
▲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이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를 마치고, 진성철 특허법원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상명	참가자 / 소속	
	특허 부문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	신동석, 임환희, 조은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예희, 어정은, 강민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허청장상	조세영, 강채은, 김혜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현, 김다혜, 이시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김민우, 김다현, 이도율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혜원, 민경은, 김재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최인규, 이강혁, 손주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현수, 이해연, 김혜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특허법학회장상	손미나, 정연철, 강신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려상 (참가번호 순)	이부미, 신정, 노승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아연, 한서현, 이수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동영, 정인혜, 장동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연수, 곽지현, 정유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수봉, 박종훈, 김나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 선 (참가번호 순)	이승현, 박선민, 지현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지원, 김세아, 이현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윤, 오현미, 김정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우, 조수아, 김지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예슬, 김세빈, 홍준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은기, 박승지, 송주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수민, 강담은, 염예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기찬, 김종휘, 차유정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도현, 최진우, 한혁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응준, 신혜리, 조재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회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지재권 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법적 전문성과 지재권 분쟁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 도모

□ 대회 추진 일정



□ 시상 내역

시상명	특허 부문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	1팀(500만원 상당 부상)	1팀(500만원 상당 부상)
특허청장상	1팀(500만원 상당 부상)	1팀(500만원 상당 부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1팀(400만원 상당 부상)	1팀(400만원 상당 부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1팀(상금 200만원)	1팀(상금 200만원)
한국특허법학회장상	1팀(상금 200만원)	-
장려상	5팀(상금 100만원)	-
입 선	6팀(상금 70만원)	4팀(상금 70만원)